Market Index / 25일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유가(WTI, 달러)	환율(원)		살때	팔때		살때	팔때
▼ 2121.64 -4.69	▼ 710.02 -7.67	▲ 57.90 +0.47	1USD	1176.53	1136.07	1EUR	1342.35	1289.97
			100￥	1098.43	1060.65	1CNY	176.37	159.59

"특수배송비, 물류기본권 관점서 접근을"

도·도의회·소비자원 물류정책 발전 세미나
배송비 타지역보다 ↑ "소비자 차별대우 안돼"

25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부담실태 및 개선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열린 '물류정책 발전 세미나'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상국수습기자

제주 등 도서지역에 기본 배송비 외에 추가되는 특수배송비가 소비자의 물류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공동 주최로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부담실태 및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물류정책 발전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상식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장은 우선 "최근들어 소비자들의 택배서비스 이용 횟수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택배서비스는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며 "단지 도서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육지권 소비자에 비해 더 높은 배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소비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센터장은 "도서지역 배송비용을 단순히 수익-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물류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 센터장이 언급한 '물류기본권 보장'은 지리적 위치, 소득, 연령, 성별 등의 차이로 인해 생활지원형 물류서비스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이 센터장은 사업자의 영업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도서지역 소비자의 물류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이 마련돼야함도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 센터장은 온라인쇼핑몰 등의 특수배송비 정보제공 강화와 합리적인 특수배송비 기준 마련 필요성도 제안했다. 그는 "일부 판매사업자는 특수배송비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특수배송비를 비교해 구매 선택하는 것이 곤란하다"며 제품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정보인 특수배송비의 정보 제공 의무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미나에서 제시된 방안을 기반으로 특수배송비 부담경감을 위해 중앙부처 건의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송재호 "관광공사·협회 통합해야"

춘계학술대회서 기조강연
도관광진흥본부 설립 주문

25일 제주아스타호텔에서 열린 제주관광학회 주최 '2019 춘계 학술대회'에서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이상국수습기자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제주관광공사와 제주도관광협회, 제주컨벤션센터 등 제주 관광 유관기관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사단법인 제주관광학회 주최로 제주아스타호텔에서 열린 '1500만 관광시대, 제주 관광 환경변화에 따른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의 2019 춘계 학술대회에서 기조 강연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자기 결정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관광협회와 관광공사를 따로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관광협회와 관광공사 등 관광 유관기관은 주도적으로 관광 정책을 수립해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들 기관을 통합해 일원화된 조직 안에 두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송 위원장은 제주도 관광국, 관광협회, 관광공사, 제주컨벤션센터를 통합할 조직의 명칭으로 가칭 '제주도관광진흥본부'를 제시했다. 또 송 위원장은 제주도관광진흥본부장은 부지사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제주도 관광진흥본부의 추진 사업들을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송 위원장은 최근 제주사회에서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이 지역 주민의 삶을 침해하는 현상) 문제가 대두되며 관광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는 것에 대해선 경계할 것을 주문했다.

송 위원장은 "관광객 유치를 경제학적으로 바라보면 소비가능한 인구를 우리 지역에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는 (다른 상품을) 수출하는 것과 똑같다"면서 "그런데 도민들 사이에 다른 국가, 지역과 거래할 때 늘 손해를 본다는 뿌리 깊은 불신이 있는 것 같다. (관광산업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한 단언하건대 제주관광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건설경기 침체로 화물물동량 급감

모래·시멘트·철재 등 30%↓
미분양 주택 처리도 '난감'

제주지역 건설경기가 침체를 이어가면서 항만 화물물동량도 줄고 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지역 건설경기의 침체가 갈수록 심화되며 항만을 통한 건축에 필요한 건설 자재인 모래, 시멘트, 철재, 목재 등의 유입량이 현격하게 줄고 있다.

최근 3년간(2016~2018) 도내 모래 유립량은 2016년 221만7402t, 2017년 211만7543t, 2018년 142만2938t으로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67.2% 수준에 불과하며 지난 5월말 기준 올해 유입량도 35만4101t에 그쳤다.

시멘트도 2016년 149만7363t, 2017년 141만2795t, 2018년 107만4538t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 한햇동안 34.0% 가량이 감소했다.

철근도 2016년 105만4448t, 2017년 108만9706t, 2018년 99만2113t으로 1년새 9.1%가량 줄었다. 자갈 역시 2017년 118만336t에서 지난해 80만6527t으로 전년 대비 68.3%에 머물렀다.

한편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도내 건설수주액은 2973억58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371억7300만원에 비해 44.6%나 감소했다. 이는 2012년 2086억8000만원이후 7년 만에 최저치다.

특히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건설수주액이 모두 줄며 최근 제주경제도 어려움에 직면했다. 지난 2월 기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미분양 주택도 1271채에 이른다. 건설회사가 자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 초당옥수수 온·오프서 '인기'

연일 매진… 매출 2억원

제주 '초당 옥수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제주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지역 농가의 실소득 증대를 위해 농가와 함께 기획한 초당옥수수(Super sweet corn)가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망에서 연일 매진을 기록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도내 판매장은 물론 온라인 쇼핑몰(이제주몰)과 도외 제주숍인숍점(킴스클럽 강남점 외) 등에서 연일 매진되는 기록을 세우며 일주일 만에 약 2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당도가 매우 높아 '초당'이라고 불리는 제주 초당옥수수는 6월 아주 짧은 기간에만 맛볼 수 있는 지역작물로, 생(生)으로 먹어도 단맛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당분 함량이 기존 옥수수에 비해 2~3배 높고, 칼로리와 녹말 함량이 낮아 웰빙다이어트 식품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농산물 판매가격지수의 하락, 제주 농업 비수기 등을 고려했을때 제주 농가에겐 단비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통상진흥원은 올해 준비물량을 대폭 확대해 다양한 판매채널(수도권 숍인숍 5개소, 온라인 20개 채널)을 활용해 7월 중순까지 판매할 계획이다.

조상윤기자

삼다수 세계의 입맛 매료
2년 연속 국제우수미각상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국민생수 제주삼다수가 글로벌 시장에서 품질입증을 넘어 그 맛까지 인정받았다.

제주삼다수를 생산, 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24일(현지 시각) 벨기에 국제식음료품평원(iTQi)에서 개최된 '2019 iTQi 국제 식음료품평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3스타'를 획득하며 국제 우수 미각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국내 먹는샘물 업계에서 최초로 수상한데 이어 2년 연속 맛과 품질을 인정받음으로써 제주지하수의 가치와 국내 먹는샘물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개발공사는 강조했다.

제주삼다수는 지난해 출시 20년만에 처음으로 국제식음료품평원에 출품해 국제 우수 미각상을 수상했으며, 올해 역시 맛과 향, 조직감 등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3스타로 선정됐다.

국제식음료품평원(iTQi, International Taste & Quality Institute)은 2005년 벨기에 브리셀에 설립된 세계적 권위를 가진 식음료 품질 평가기관이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하귀2리	서홍동	유수암리	연동1.5룸	토산리(급매)	와흘리	고산리
자연녹지(전) 일주도로접 223㎡ 바다, 한라산조망 **2억2천**	호텔 25실 해안도로접 전 객실 바다뷰 **34억5천**	계획관리(전) 2차선접함 **400㎡** 오수관공사중, 다용도부지 **1억7900만**	마리나호텔사거리 인근 10층 중 7층 로열층 남향, 위치좋음 **1억5200만**	계획관리(과수원) 4m도로접함, **4056㎡** 건축가능토지 **5억1천**	계획관리(전) 전원주택부지 **951㎡** 현과수원사용, 건축허가득 **3억4500만**	계획관리(전) 자연취락지구 731㎡ 전원주택 및 펜션부지 **4억4600만**

등록번호: 제 50110-2017-002100호
대표공인중개사 : 노진업
위치 : 연북로 606, 3층
제주항 공인중개사 064-723-8850 010-4692-0952

등록번호 : 가 4402-408
대표/공인중개사 박완희
공인중개사 제주컨설팅
☎ 726-4585
010-8660-1263

와흘리 계획관리지역 창고 대지 2,100㎡ 창고 2동 640㎡
- 구좌읍 김녕리 4,300㎡(자연녹지, 맹지)
- 거로마을 주거지역 1600㎡
- 남원 하례리 2300㎡ 자연녹지(과)
- 대정읍 무릉리 전 12,000㎡(계획관리지역)
- 법환동 2400㎡, 5000㎡ 해안도로 인근 (건축허가 득)
- 서귀포 강정동 2100㎡ 자연녹지(과)

표선면 가시리 계획관리 35,000㎡(2차선접, 임·과)
- 서귀포 법환동 오피스텔 38.19㎡ 분양가 이하 매매
- 오등동 전·임야 18,000㎡(생산관리지역)
- 애월 유수암리 2,500㎡(계획관리, 임, 2차선접)
- 조천읍 북촌리 전 3,000㎡(자연녹지, 맹지)
- 조천 신촌리 자연녹지 1,600㎡(대도로접)
- 한경면 저지리 전(11,000㎡) 계획관리지역
- 한림읍 옹포리(주거지역) 2,000㎡ 바다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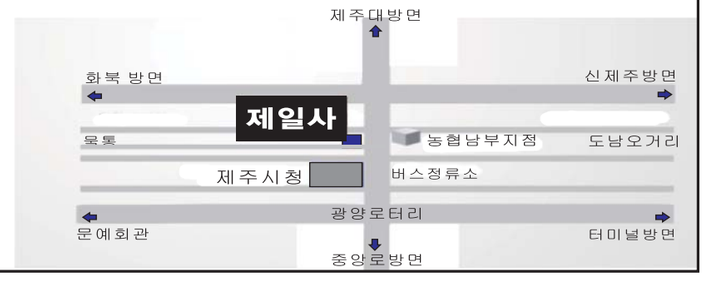
신제주로터리 현일빌딩 3F
대표/공인중개사 부 문 복
동 부 공 인 중 개 사
☏ 010-2800-4595
064-747-5115

※김녕해안도로접 2474㎡ 15억원
- 해안동마을 맹지 대674㎡/폐가50㎡ 5억
- 해안동 생관임야(목장) 맹지28,842㎡ 6억
- 상명리 조립식주택60㎡/대430㎡ 1.5억
- 수산봉 저수지인근 카페용경관양호 620㎡ 3.1억
- 판포 바다경관 굿 자연녹지 3028㎡ 6.4억원

※하례5.16도로동측과수원 8856㎡ 11억원
- 아라동기자촌내 1090㎡ 9.24억
- 봉성 시멘트도접 임야 842㎡ 6000만원
- 고성외고인근2차선접 대지조성 481㎡ 6.5억원
- 유수암 2차선 변 주택착공 토지 519㎡ 2.5억
- 조천해안도로인근 대지 502㎡ 3.35억

※중문고인근 자연녹지 638㎡ 3.3억
- 선흘검은오름 북측 주택용지 1002㎡ 2.2억
- 신촌 2종주거지역 대 157㎡ 1.7억
- 우도하고수동해수욕장인근 10,323㎡ 12.5억원
- 월정리 해수욕장 택지조성지 393㎡ 6.5억
- 오라정실 마을내 587㎡ 7.65억원

양복점 제일사 의 약속
모델비례 체형맞춤정장
30년 전통, 고객 체형에 맞춘 재단
원단과 공임만의 마진을 뺀 합리적 가격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회원제 서비스
http://www.cheilsa.co.kr
제주시 이도이동 1180-12 TEL: 722-0914 FAX: 722-9098

최고급복지	맞춤정장	100만	**40만**
고급	〃	60만	**35만**
보통	〃	35만	**25만**
최고급복지	맞춤콤비	60만	**30만**
고급	〃	40만	**25만**
최고급복지	맞춤바지	25만	**12만**
고급	〃	15만	**8만**
보통	〃	10만	**6만**
와이셔츠	맞춤셔츠	8만	**5만**

영업시간: AM 9시~ PM 9시 일요일은 쉽니다.
NAVER 제 일 사 검색